東方의 빛이여! 그대 이름은 코리아

宋 相 現 (서울대 법대 교수)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 번 켜지는 날에는
그대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詩는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일제식민지시대에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1929년 봄 일제의 압제와 착취에 신음하던 우리 국민에게 동아일보를 통하여 전해준 격려의 시구(詩句)이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국내외적 변화와 기복을 경험하고 있다. 20여 년간 한덩어리로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 국가경제규모는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였고, 개인 소득도 세계의 주목을 끌만큼 향상되었다. 돌이켜보면 공장에서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베트남(월남)의 전쟁터에서, 열사(熱砂)의 나라 중동에서, 폭풍도 험한 北洋에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밤낮없이 잘살겠다는 집념을 불태운 결과 귀하게 얻어진 결실을 우리는 즐겨왔다. 분배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나, 만성적 인프레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고, 단군 할아버지 이래 무역흑자를 올렸다고 뿌듯한 마음으로 온 국민이 기뻐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급변하는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무너지는 철의 장막을 뛰어넘어 우리의 立地를 넓혔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는가 하면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근 5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동토지대(凍土地帶)인 북한과도 같이 부둥켜안고 민족대화합의 서사시를 합창할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1987년의 6.29선언 이래 정치적으로도 조금씩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겠다. 참으로 한국은 타고르가 60여 년 전에 읊은 대로 등불을 다시 켜서 전세계를 밝게 비추게 되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땀흘려 이룩한 경제성장과 기회를 잘 포착하여 이룩한 국제관계개선을 토대로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지난 수년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험난한 시련과 값비싼 시행착오의 기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염치없이 먹고 마시고 세계각지를 몰려다니고 놀면서 순식간에 밖으로는 외국인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안으로는 생산공장의 기계를 녹슬게 만들어 버렸다. 폭력으로 얼룩진 빈번한 노동쟁의는 기업인의 사업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수출경쟁력에서 패배를 자초하였으며 늘어나는 것은 실업자수와 적자

요 오르는 것은 물가와 임금뿐이라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말았다. 장래를 비관할수록 단기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려서 긴장과 대립과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키고 약육강식의 원시행태로 돌아가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우리의 기대를 철저하게 저버린 정치인들의 행태와 후진성은 국민을 다독거리면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여 착오 없이 진군해야 할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무능과 불신을 초래하여 국민을 불안과 체념에 빠져들게 하였다. 거들먹거리고 헤프게 흥청대던 것도 순간이었을 뿐 이제는 자신감을 잃은 채 우려와 회한과 과거에 대한 그릇된 향수만이 국민의 마음속에 안타깝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끈질긴 민족이다. 거대한 동북아대륙의 끝에 노루꼬리만큼 붙어있는 한반도에서 지난 5천년간 중국에 흡수되어버리지도 않고 끈질기게 우리의 생명력을 발휘하여 독자적인 말과 글과 문화를 보존하여오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날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힘을 과시하지 않았는가. 우선 우리는 이같은 역사의식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보다도 옛부터 체면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선비정신을 가진 우리의 자존심이 외국인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거나 혼란과 패배와 좌초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미같이 일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실증이 나서 먹고 놀았다고 치자. 뱀탕도 싹쓸이했고 곰도 실컷 먹었으니 몸보신도 잘했을 것이고 세계의 휴양지마다 떠들석하게 놀았으니 휴식도 충분히 취했을 것이다. 각국을 주름잡아 여행하면서 돈을 많이 썼으니 견문도 넓어졌겠으나 주머니가 다 비었을 것이다. 이제는 제정신을 차려서 일을 할 때이다. 다시 시작할 시점이다. 놀더라도 일하고 나서 놀아야 더 맛이 있는 법이다.

우리에게는 바야흐로 그동안 빈곤과 압제에서 고생해온 북쪽의 형제를 돕고 통일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할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말로는 들뜬 목소리로 통일을 외치지만 착실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은 없는 듯하다. 다행히 모 종교교단에서는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통일을 대비한 축적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우리가 그리운 북쪽형제들에게 좀더 커다란 몫을 나누어 주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각자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놓은 채 대권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회의원 선거에 지나치게 들떠 있다. 금년에 있을 네차례의 선거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선거망국론과 경제파탄론이 소리높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일정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리더십에 실망한 국민들이 유혹적인 금전공세와 얄팍한 선고공약에 넘어가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만 한다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굳건한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할 때 코리아는 다시 한 번 찬란한 동방의 빛을 발휘할 것이다.

(1992.1.24. 대전일보)